

이병수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1. 서론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국제이주민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서 2009년 5월¹⁾ 현재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약 2%인 120만 여명에 이르렀다. 이 수는 1990년에 비해 30배나 증가한 것이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경에는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2세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해 2009년 현재 전체결혼건수의 12%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제결혼 가정 2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주민과 그 2세들이 늘어나면서 언어와 종교, 문화, 외모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 서구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이주민과 갈등 문제를 우리도 겪게 되지 않을지 염려와 걱정도 함께 늘어났다. 2005년 말 프랑스 파리의 이주민 소요사태, 2006년 하인즈 워드 방한,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 등은 한국에서도 이주민 2세의 사회통합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염려와 걱정, 관심 속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등장했고,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최근의 통계가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²⁾의 학력은 최하위 수준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 결과 학교 중도 포기율은 초등학교 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 등 전체적으로 24.5%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학교 미 취학률 24.5%는 우리나라 전체 미취학률 3.6%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³⁾ 특히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국제결혼⁴⁾ 자녀의 교육이 문제였다.

출산율의 저하⁵⁾로 노동력인구를 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⁶⁾ 가운

1) 조선일보 참고 2009년 5월 통계

2) 국제신문 이학춘 한국에는 2008년 초 현재 11만362명의 국제결혼자가 있으며, 이 중 여성은 9만7236명이다. 국제결혼여성 자녀의 취학아동 수는 1만8778명,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90%인 1만6937명이다. 이들 학생의 거주 지역으로 시 지역은 1만598명(56.4%), 읍·면 지역은 8130명(43.6%)이다. 이들 자녀의 부모 출신국가는 일본 8293명(44.2%), 중국 4594명(24.5%), 필리핀 3009명(16.0%), 베트남 864명(4.6%), 태국 311명(1.7%), 러시아 204명(1.0%), 몽골 216명(1.1%), 미국 216명(1.1%) 등이며, 총 14개국 이상 출신 자녀가 취학하고 있다.

3) 조선일보 2008.10.25일자

4) 2009년 8월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는 대부분 중산층 여성들로서, 본인과 가족들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국에 시집온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절반에 가까우며, 전문대 이상도 22%에 이르고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 비율이 3:1 정도임이고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이 다문화 사회와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로서, 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진단과 처방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⁷⁾.

2.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상황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상황을 논의하기 전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논자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주장한다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것을 방치했을 때 우리사회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다.

2.1.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다⁹⁾. 먼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 능력의 부족¹⁰⁾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대화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 부족 등 학습능력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국어 대한 금지 상실로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

5) 조선일보 2009년 11월19일 목요일 A2 면과 중앙일보 2009년 11월19일 목요일 종합 3면 참고, “한국, 출산율 쫓겨... 40년 뒤 인구 420만 명 줄어든다.” 기사 참고. 최근 유엔이 발표한 ‘2009 인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평균 출산율이 2.54명인데 한국은 1.22명.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186개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나타났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적었다. 이 수치는 UNFPA가 과거 5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에 집계한 국내 출산율 1.19명을 대입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된다. 출산율은 선진국 1.64명, 개발도상국 2.7명, 저개발국 4.29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았다.

6) 중앙일보 2009년 11월20일 E2, “성공 코리아 이어갈 3대 필수조건 개방적 이민 정책, 내수확대, 혁신” 미국 월가 이코노미스트 골드스틴은 “한국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 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성공을 이어가려면 이노베이션(혁신), 개방적 이민정책,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수시장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선 혁신을 일으키는 한편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수준 높은 외국인재를 끌어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나마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있는 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수혈 받고 있는 인재 덕분이라며 한국도 인재를 밖으로 내몰기 보다는 끌어들이기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7)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교육종합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주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과 교육방향, 조영달, p. 1-2

8) 상계서 다문화 자녀 교육의 이해와 장학, 윤희원, p.7.

9) 상계서 p.8.

10) 외국인 아동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56%이며, 이로 인한 낮은 성적 16%, 따돌림, 구타, 교우 문제 20%, 생활수준의 차이 4%를 차지함.

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3.4%와 비슷한 수준)

※ 자료: 설동훈 외, 2005.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2.2.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다¹¹⁾.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①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 ② 양육 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④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국적 취득의 권리, 휴식·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⑥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학교 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¹²⁾. 최근의 연구 자료¹³⁾에 의하면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가 그 학생들을 학교 안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 가정 자녀들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그들의 특징은 빈곤한 가정에서 생활했다. 새터민 가정의 31.7%가 무직이며, 단순 노무자 10%, 장치기계 조작 23.3%로,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음. 취학률이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고, 낮은 학교성적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

11) 상계서 p.9-10.

12) 상계서 p.10.

13) "위기의 청소년, 이해와 대안", 위기 청소년 종합지원의 현황과 과제, 홍봉선 p.64-90. 국제교육문화포럼 주최 2009.9.3

14) 윤희원, p.12-13 .

났다.

낮은 학교 성적이 가장 큰 고민 (※ 자료: 김미숙 2003)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것	20(58.8)	28(90.3)	48(73.9)
말씨가 다른 것(북한 사투리)	7(20.6)	0(0.0)	7(10.8)
어려운 가정환경	1(20.6)	0(0.0)	1(1.5)
외모(키, 얼굴, 몸매 등)	3(8.8)	2(6.5)	5(7.7)
친한 친구가 없음	2(5.9)	1(3.2)	3(4.6)
가정의 불화(부모형제의 다툼, 이혼 등)	0(0.0)	0(0.0)	0(0.0)
선생님의 무관심	1(2.9)	0(0.0)	1(1.5)
계	34(100.0)	31(100.0)	65(100.0)

2.3.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¹⁵⁾. 자녀들의 귀국에 대비해 모국어 교육에 힘쓰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위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있으며 부모 중 51.1%가 자녀가 대학에, 19.3%가 고등학교에, 14.8%가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바라고 있었다.

3. 다문화화에 따른 교육문제¹⁶⁾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다문화 과정 가운데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예를 들어, 1)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및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현상이 심각해졌다거나, 2)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교육 실패, 그리고 학교제도에 수용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3)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학교성적, 교우관계, 언어 등) 등은 이러한 문제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이런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15) 윤희원, p.11.

16) 조영달, p. 1-2.

우리사회가 국제화된 사회의 모범적 국가로 선진국으로 가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4. 다문화교육의 필요성¹⁷⁾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하여는 여러 다양한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자들은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 및 여러 사회 계층 출신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평등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1) 인권의 측면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 개인에게는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사회 전체로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케 할 수 있으며, 3) 나아가 한국 사회에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섞임으로서 더욱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다문화교육의 흐름¹⁹⁾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이론이나 실천의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1) 하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흐름이다. 흔히 회자되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은 이에 해당한다. 즉, 용광로를 거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은 그 사회의 주류문화에 동화되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나 민족 상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간에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긴장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3) 최근 들어 민족이나 인종을 이루는 각 집단은 그 나라의 가

17) 조영달, p.2.

18) James A. Banks(1999),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Edited by J. A. Banks; Jossey-Bass, San-Francisco) pp.3-24.

19) 조영달, p.3

치관과 지식의 형성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각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가 품을 수 있을 때에 그 사회 역시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볼(salad bowl)”²⁰⁾에는 각 각의 야채가 그 자체로 접시에 담겨 있지만 같이 있어 더욱 야채 맛을 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이론은 융광로와 같이 다른 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6. 다문화 교육의 종류²¹⁾

첫째,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제결혼가족과 그 자녀가 대상이다.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에의 적응교육이 주된 대상이다.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므로, 언어와 문화면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에 적응이 쉽도록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국제결혼가족과 그 자녀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자녀교육까지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보다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만,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한국어가 서툴며, 이는 학습 부진으로 연결되므로,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교육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아정체성 혼란이 야기되므로, 문화체험 등을 통해 정체성 교육을 한다.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이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해 공감하도록 하는 이해교육을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7. 다문화교육의 내용²²⁾

다문화교육의 종류와 관련하여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수자, 즉 일반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절대화하여 타문화를 차별적 시선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과 상생의 의

20) Argy Araboglou(1996),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spects for Our Schools, Critical Issues in Teaching Social Studies(Edited by B. G Massialas & R. F. Allen; Wadsworth Pub. Co., London) pp.253-284.

21) 조영달, p.4.

22) 안경식의,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8.에서 발췌 요약함.

식을 가진 시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점에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 국제화 사회 선진화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수자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다수가 첫째, 다양한 민족이 지향하는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적응이다.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 추구 및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민족 문화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타문화이해와 관용을 기르게 한다.

첫째, 문화적 주체화, 자아정체성의 형성 및 대응력 육성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 관용,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올바른 지식과 기능 가치를 수립하며, 자아 정립과 삶의 방식, 사회적 관계 형성 교육을 한다. 셋째, 개인과 집단, 지역, 국가 간 갈등 극복과 평화 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인류 인권의 존중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실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사실 이런 다문화 태도가 이루어질 때 거시적으로 문명의 충돌²³⁾을 피하고 문명의 공존²⁴⁾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8. 다문화가정 학생현황과 교육정책²⁵⁾

8.1.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시작하다.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며,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시작하다.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지며,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다.

■ 재학 현황

(’08.4.1. ’09.4.1.기준)

23) 사무엘 헌턴튼의 "문명의 충돌" 김영사

24) 하르트 뮐러의 "문명의 공존"

25) 하승희, "다문화 가정 교육 학생현황과 교육정책" 참조 2009.5.3 국제교육포럼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구분		유	초	중	고	계
'08년	국제결혼가정	127	634	92	44	897
	외국인근로자가정	4	17	2	2	25
	계	131	651	94	46	922
'09년	국제결혼가정	186	815	134	42	1,177
	외국인근로자가정	16	30	7	4	57
	계	202	845	141	46	1,234

■ 학년별 현황

('08.4.1. '09.4.1.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08년	국제결혼가정	32	51	44	127	12	12	10	10	11	62	63	29	39	24	92	22	9	13	44	897
	외국인근로자가정	1	2	1	4	3	1	2	2	3	6	17	0	2	0	2	2	0	0	2	25
	계	33	53	45	131	15	13	12	12	14	68	80	29	41	24	94	24	9	13	46	922
'09년	국제결혼가정	43	72	71	186	15	15	15	11	12	63	81	49	39	46	134	17	17	8	42	1,177
	외국인근로자가정	4	6	6	16	6	6	3	5	6	3	29	2	0	5	7	2	1	1	4	57
	계	47	78	77	202	21	21	18	17	18	71	110	51	39	51	141	19	18	9	46	1,234

이상의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취학율이 매년 약 30%이상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급속한 증가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되었다. 그들이 겪는 문제점으로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아버지로부터 겪는 가정 폭력, 둘째, 엄마와 아버지의 언어소통의 문제와 빈곤으로 겪는 가정해체, 셋째, 빈곤의 악순환과 교육의 소외, 넷째, 한국학생들로부터 겪는 따돌림과 학교생활 부적응이다. 따라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상적 가정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의 대안으로 첫째, 한국남성들에 대한 '아버지 학교'와 같은 교육복지를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깨달도록 하는 것,

둘째, 그 남성들이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셋째, 결혼이주여성들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르쳐주는 것,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지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복지이다.

8.2.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8.2.1. 다문화가정 무상교육제공

전북도교육청이 전북의 다자녀·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²⁶⁾.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10일 "출산을 장려하고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과 다문화 가정 초·중·고생 모두의 교육비를 내년부터 예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4자녀 이상인 가정의 초·중·고생은 5951명, 다문화 가정 자녀는 21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내년에 급식지원비 18억3000여 만 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억5000여 만 원, 고교 수업료 22억 여 원 등 모두 42억 원 쪼미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 교육감은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및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학 입시에서 특례 입학을 허용하거나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8.2.2. 다문화 가정교육을 위한 근본적 대책

이런 내용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복지에 좋은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면이 있지만 이제는 기아 급수적으로 증가할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근본적 2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 대책으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국민이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을 강점이자 미덕으로 여겨왔고, 사실 이런 태도가 우리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1) 순혈주의 및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편향적 지원

26)조선일보 2009.6.10자 인터넷판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에 법적인 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가족 중 반드시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또한 주 대상은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다문화가 사실은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동화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과 가족관계가 없는 어린이들은 최소한의 교육권과 의료권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2008년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라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현재에도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1,400명인데 반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8,000명 이상이나 된다. 보호자가 강제단속과 추방의 위험에 처해 있어주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 이주민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주민 2세의 배경도 다양해지고 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른 이주노동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지만 부모가 영주권만 가진 채 귀화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도 있다.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눈을 감고 한국사회가 여전히 한국인과 혈연이나 가족관계를 가진 이들만을 ‘우리’의 틀 안에 두려하는 한 교육에서 소외되는 어린이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엄마가 외국인인 사람 손들어 봐!²⁷⁾

이주민 혹은 이주배경을 가진 2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당사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방식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더욱이 그 대상이 상처받기 쉬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실태를 파악한다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들어 부모가 외국 출신임을 밝히도록 한다면, 따로 남겨 특별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어린이와 그 부모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많은 어린이들은 부모가 외국 출신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다른 친구들과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

27) 이한숙, “다문화가정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으로” p. 26-32. 2009.5.3 국제교육포럼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라, 외모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한 친구들 또한 그 친구의 부모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본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의식하기도 전에 ‘특별한’ 지원이 오히려 ‘너는 다르다’는 의식을 밖에서부터 불어넣는 과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3) 일방적 지원의 문제점²⁸⁾

또한 다문화가정도 그 배경과 조건이 다양한데 그런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일괄적 지원도 문제이다. 이 또한 다문화 가정은 모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구 중 5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을 벌고 있었다. 실제로 다수의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빈곤층에 속하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학전 교육에서 소외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은 취학 후에도 학습에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유의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굳이 다문화가정 만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저소득층 일반에 대한 보호막이 너무 빈약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과 그 자녀들 일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보나 언어 제약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이다.

두 번째 대책

1) 모든 소수자의 차별에 반대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²⁹⁾

서구에서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는 많은 경우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출현했다. 소수자들이 그간의 차별에 대해 사회 전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소수자들과 사회, 문화적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문화를 다수문화와 함께 존중하는 사회, 비

28) 상계서 참고

29) 상계서 참고

주류의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단일민족신화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공유해 온 사회이다.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관습, 문화 뿐 아니라 법과 제도, 교육 모든 측면이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다문화교육은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혹시 소수자들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았는지, 소수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법적, 제도적 제한을 두지 않았는지,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많은 것들을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즉 사회의 지향,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교육은 다수자와 소수자, 이주민과 선주민, 어린이와 어른 등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 다수자에게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견을 없애는 것에서 출발해서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이주민에게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민과 그 2세들에게는 혹시 그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대상도 주로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고, 내용도 한국문화체험과 한국어 교육인 경우가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예비교사의 다문화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다문화교육 강좌’ 계획은 이름조차 ‘다문화와 한국어교육’이다. 그나마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실내용은 타 국가의 기본적인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국제이해교육’ 수준이다.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의 출발일 수는 있지만 양자가 등치되는 것은 곤란하다.

다문화교육이 소수자와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에 충실하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인권교육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해 가야 할 것이다. 차이의 강점을 살리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9. 교육방향의 변화³⁰⁾

30) 조영달, p. 4-5.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면서 교육의 과정(過程)에서 다른 민족과 인종 및 다른 문화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³¹⁾. 수업 내용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 등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형성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욱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주류문화에 진입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그것이 단순한 문화결핍이 아니라 그들 문화의 속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도 지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들은 인권과 교육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10.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노력과 지향

10.1. 다문화교육을 위한 노력³²⁾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된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왔다³³⁾. 예를 들어, (1)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만들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상담이나 한국어/전통문화 교육(예,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 및 학습 지원(예, 학부모 사랑방 봉사, 글로벌 에티켓 교재)이 이루어져 왔으며³⁴⁾, (2)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에 대하여는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외국인노동자센터나 노동자의 집(안산, 성남, 부천, 부산 등) 및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을 특별학급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며(경기도 교육청) 대안학교의 설립(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의 추진 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NGOs)를 중심으로 여러 교육프로그램과 의료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3) 그리고 새터민 가정 자녀를 위해서도 생활공동체 성격의 대안학교나 방과 후 학습보충 프로그램의 운영 및 특성화고교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31) James A. Banks, *ibid*

32) 조영달, p.4-5.

33) 외국의 경우에도 우선교육지대(프랑스), 가족 프로젝트(독일), 니케이진(일본)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34) 예를 들어 전북교육청의 KOSIAN EDU PLAN의 수립 시행 등을 들 수 있다(다음의 <http://www.jbe.go.kr/JBEWAO/Index.aspx> 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음).

10.2. 한국 다문화교육의 실천 지향³⁵⁾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실제로 대면하는 교육현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교육의 소외를 막고 다양한 문화의 인정과 포용으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하여 학교사회에서 교장·교감선생님, 교사, 학부모 및 관련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에 대한 현장교육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공공부분 및 학교와 민간의 다문화교육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종합적 관리를 위한 민관의 협력 기구와 다문화교육 연구·연수 센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관리 단위를 개인에서 가족화하고, 다문화 교육 관계망을 형성하는 문제나, 학교/교육과정/교과서 차원의 다문화적 고려, 다문화교육의 정보화, 등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국사회는 사회적 통합에 더욱 다가서며, 세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0.3. 외국의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³⁶⁾로 대표적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미국

기본적으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은 의미가 없으므로 불법이민자 정책과 관련됨. (불법이민자의 경우, 서비스 수급자격은 있으나 실제로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움.) 불법이주 임신여성의 출산과 보호, 자녀의 양육, 교육 등 사회복지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

1981년 이후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선교육지대”(ZEP: Zone d'éducation prioritaire)가 시행되고 있고 공화국의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신임교사 지원, 모든 교사양성소(IUFM) 교육 참여 등을 통해 교사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35) 조영달, p.5.

36) 윤희원, p.13-14.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증가를 예외적 현상, 단기적 현상이 아닌 세계화과정에서 중요한 지속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족 프로젝트”로 보고 장기 대책을 추구함. 독일어 교육은 물론 출신 국가의 언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가족 내의 세대간 통합 및 청소년 부적응을 예방함. 또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통합을 저해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생산, 대중매체에서의 고정관념화 등을 경계함. (주거 통합 대책, 어머니 단체 등)

결론

얼마 전 버락 오바마(Barak Obama)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루우즈벨트 대통령(트루먼을 제외한) 이후 전후 최고였다고 한다. (미국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 69%).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통합과 부드러운 경손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최근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힙(hip)한 대통령"이라고 묘사했다. '힙'은 20세기 초 흑인들이 만든 속어로 사전적 의미는 ▲최신 정보에 밝음 ▲유행을 좇는 사람 ▲멋진 등이다. 하지만 대체로 '힙'하다는 말은 '최신 감각을 갖춰 대중에게 매력적이거나 대중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매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대통령중의 한 사람인 셈이다.

이렇게 멋진 버락 오바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였다. 아프리카 케냐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출신 백인 어머니 가운데 출생했다. 그의 어머니는 흑인 아버지와 이혼 한 뒤 인도네시아 남자와 재혼했고 그 양아버지를 따라서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가 다른 인도네시아 여동생은 중국계 캐나다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오바마는 “우리가족이 다 모이면 유엔 같을 것”이라고 하였다³⁷⁾. 한마디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였다. 어머니가 또 이혼 한 뒤 버락 오바마는 외조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보내졌다. 거기서 그는 백인들의 '왕따'를 경험 했고 버락 오바마가 1961년생이었으니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깜둥이’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³⁸⁾. 참으로 오바마는 상처가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런 상처가운데 그는 마약도 손을 대기도 해서 한때 ‘문제아’로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외할머니의 교육의 힘으로

37) 중앙일보 2009 11월 17일 종합 3면

38) Newsweek 2008년 5월

오늘의 그가 되었다고 한다.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육의 힘으로 다문화 가정자녀 중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미식축구선수 하인즈와 한국의 대표적 대중가수 인순이 둘 다 아버지가 미국 흑인이었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 남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전에 사람들은 그들을 ‘혼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튀기”라는 용어까지도 사용하였다. 그것은 언어의 폭력이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규모가 12위에 해당되는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인구 5천 만 명 이상에 개인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국가가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없는 선진국이다. 한국은 자동차·선박·전자 등에서 세계최고를 달리는 나라다. 우리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특허를 많이 받는 나라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규모의 선진국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책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의 위대성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방성’에 두었다³⁹⁾. 그 개방성 때문에 로마가 가장 위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장인정신에서는 현재로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타민족과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개방성이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 곳이 국제이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정책 지원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정적 요소로 이들의 교육문제를 소홀히 할 때 서구사회가 직면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지적처럼 현대사회가 ‘위험 사회’이듯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빈곤 문제의 이중차별로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것이고 이들이 실업 상태 및 부랑아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무서운 부메랑으로 우리 사회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긍정적 요소로 이들이 가져다 줄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인구증가와 함께 가져다 줄 노동력은 한국여성의 출산율 저하로 치달는 인구감소와 노동력부족을 해결해 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제 이주자와 그의 자녀도 우리와 똑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인류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다문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39)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pp. 278-279 한길사 서울 2002

해야 할 일은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정신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의 한 사람인 알렉산드로스(BC 356-323)의 위대성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세계시민 정신 때문이었다. 그의 위대한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야만인들(그리스인이 아닌 사람), 특히 아시아인은 ‘타고난 노예’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인의 편견과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를 뛰어넘은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제자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전쟁터 등의 장소에서 야만인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리스인이 과연 그들보다 우월한지 시험해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329년 힌두쿠시를 가로질러 박트리아로 진군할 때는 대규모의 아시아인을 원정 주력군으로 총원했다. 그는 아시아 여성 록사나와 결혼했고, 1만 명의 병사들에게도 아시아 출신 아내를 얻게 했다.

‘현대 문화인류학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그의 구조주의 이론에서 어떤 문명이나 민족도 다른 집단 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수한 서구문명이 미개한 원시문화를 지배한다는 서구 우월주의의 편견을 깨뜨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국제이주자나 하나님 앞에서 똑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시는 여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자와 국제이주자들과 같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과 상생의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이주자들에 대한 한국사회 통합정책에서 부모나라 모국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지원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행복한 것은 자랑스러운 부모출신 국가자녀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많은 다문화 가정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있는데 국내인들이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 외국인출신 엄마에게 모국 언어를 가르치도록 장려하고, 나아가서 의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터민의 경우 이들에게 북한 탈북자임을 자랑스럽게 인식시키면서 향후 통일을 대비한 전문인력으로 길러야 한다. 둘째, 다수의 국가별 또는 직업별 대안학교를 만들고, 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학력 콤플렉스를 없애야 한다. 특히 국가별 대안학교에서 다문화 엄마가 교사로 일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미래 한국사회의 국제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인재이다. 이들은 배타적 한국사회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동들이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들을 훌륭한 국제인재로 키워 엄마나라에 파견시킬 때 그들 자신의 문제와 한국의 국제화문제는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정책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가 꿈 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면 학력포기로 인한 이들의 자학적, 반사회적 행동이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국제적 인재로 거듭나게 될 때 한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인적자원을 보유한 국제적 수준의 인적자원 보유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은 미래의 정책이 아니라 현재에 가장 시급한 정책이다.